15

ACOH 학술대회 개최로 국제학술교류를 시작하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1970년대 말까지 협회는 두드러진 도약을 보였다.

한국에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이 싹틀 무렵 산업보건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노동청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을 맡기까지, 한국의 산업보건사업의 중심을 거론함에 있어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을 정도다.

설립 이후, 협회는 근로자복지의원을 개설하고 각 지방의 요지에 산업보건연구소(1978, 산업보건서비스센타를 산업보건연구소로 개칭함)를 운영하면서 시도지부의 조직을 확장하였고, 시도지부는 해당 지역 의과대학과 협력체제를 굳히면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9년 10월 아시아산업보건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일본과의 기술교류로 한국 산업보건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발전에는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여와 노력이 깊숙이 관여했다. 자금 문제도 난제였지만, 무엇보다 '산업보건' 자체를 알려야 했던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최영태 회장의 사임과 변화

1980년,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의 산업보건에 헌신해 온 최영태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미국에 거주하던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다. 최영태 회장은 협회 창립부터 17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었기에, 그의 회장직 사임은 협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한산업보건협회에는 17년간 최영태 회장과 함께 한국 산업보건의 질곡을 헤쳐온 조규상 부회장이 있었다. 그는 최영태 회장의 사임 이후 회장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듬해 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에는 계원철 이사(항공우주협회 회장 역임)와 정봉석 이사(당시 시민병원 원장)가 선출되었다.

1982년 가톨릭의과대학이 서울시 반포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협회 본부도 함께 이동했다. 새로운 회장,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다.

커가는 협회, 그러나 만성적인 걸림돌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따라 직무교육대행기관과 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구성된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의 사무실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내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협회가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를 주관하여 운영했다. 협의회의 회장 역시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 겸직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협회의 조직은 점차 커져갔고, 각 시도 산업보건연구소의 규모와 인원 역시 확장됨에 따라 협회의 회계나 기타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임기응변에 가까웠던 운영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여 협회 재무를 위탁했고,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협회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난과 인력난은 협회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1983)

상근 업무이사 취임

협회 내부 개혁이 제자리를 맴돌던 무렵, 정부에서 모든 형태의 협회 업무를 강화한다는 의도에서 "상근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시책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1983년 12월, 협회는 정한주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최병수 전무이사가 상근업무이사로 부임하고 다음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아차, 잘못 왔구나…'

당시 나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었지만 6개월 전 공직을 떠난 후 쉬면서도 월급쟁이 생활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한참을 망설였다. 장관께서는 조규상 회장이 하시는 일이 매우 보람되고 중요한 일이니 그간의 경험을 살려 돕는 마음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만나게 되었던 것이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협회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니 전국에 직원이 79명, 보릿고개가 있어 몇 달씩 월급이 밀려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차,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때는 이미 조규상 회장님께 일을 해보겠다고 약속한 터라 그만 두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며칠 후 정한주 장관댁을 방문했다.

장관께 협회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협회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청했다. 다행히 당시 노동부 주무부서 신석규 국장께서 매우 열성적으로 지원해 주어 협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최병수, 「대한산업보건협회 40년사」

결단, 그리고 변화

이후 협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임금체계나 인사관리, 직제, 본부 중심의 운영 등이 새롭게 정해졌고, 최병수 이사가 상근이사로 부임 하면서 1984년 반포동에 본부 사무실을 임대, 가톨릭대학으로부터 20여년만에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독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최병수 이사의 결단에 따라 가톨릭대학과 가까운 곳에 60여 평의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다.

또 서울, 부산, 경북, 광주, 마산 등 5개 지역센타만 가지고는 정부의 산업보건정책과 시대의 수요 변화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산업보건사업의 전개가 어렵고 재정의 확충도 불가능하다

는 판단에 따라 1984년 대전에 대전산업보건센타를, 1985년 울산에 동해산업보건센타를 설립했고 전북(1987), 충북(1988), 의정부(1992), 양산(1992), 수원(1992)에도 각각 산업보건센타를 설립하였다. 1989년 중앙산업보건센타(영등포)에 본부 직할의 중앙분석실험실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영입한 뒤, 각 지역센타에서 보내오는 시료를 분석하는 등 작업환경측정 수준도 향상시켰다.

새로운 성공이 보였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어갔다. 협회의 재정도 꾸준히 증가했고, 진료 뿐만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도 높아졌다. 민주화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근로자들의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과 재야의 관심에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